

원저

## 《鍼灸大成》의 문헌적 특징에 관한 연구

김기욱<sup>1,2</sup> · 박현국<sup>1,2</sup>

<sup>1</sup>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sup>2</sup>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

### Abstract

## A Study of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Chimgudaesung(鍼灸大成)》

Kim Ki-wook<sup>1,2</sup> and Park Hyun-guk<sup>1,2</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imgudaesung》 on documentary characteristics such as truth or falsehood of authors, editions, the relationship of 《Hyeongibiyo(玄機秘要)》.

**Materials and Methods** : Based on Hwangyongsang(黃龍祥)'s study, the author of 《Chimgudaesung》, the number of volumes and edition, basic contents and constitution, characteristic of reference, and the documentary research results will be arranged.

### Results and Conclusions :

1. 《Chimgudaesung》 was made by Geunhyeon(靳賢) based on Yanggyeju(楊繼洲)'s 《Hyeongibiyo》, and in the 29th year of the Manryeok(萬曆) era Jomunbyeong(趙文炳) saw to the inscription. Therefore, the author must be recorded as 'Originally by Yanggyeju of the Myeong(明) dynasty, revised by Geunhyeon'.

2. The existing Myeong dynasty editions are mostly Leewolgyu(李月桂)'s 'Jungsu edition(重修本)' from the 14th year of the Sunchi(順治) era of the Qing(清) dynasty and Wangbo(王輔)'s 'Chesu edition(遞修本)' Leewolgyu and Wangbo's preface was deleted and the original text was supplemented from the 37th year of the Ganghui(康熙) era. There are many traces of revision, supplementation and copying by people of later generations in these editions.

3. The 'Chukin edition(縮印本)' of 《Chimgudaesung》 is mostly a merge of the Myeong dynasty editions and used much of the new revised 'Chesu edition'. This editions should not ever be used again as an original in putting the 《Chimgudaesung》 in order.

· 접수 : 2008. 11. 13. · 수정 : 2008. 11. 21. · 채택 : 2008. 11. 22.  
· 교신저자 : 김기욱,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Tel. 054-770-2664 E-mail : kkw@dongguk.ac.kr.

4. After 《Chimgudaesung》 was published *Jomunbyeong* had a craftsman publish 4 drawings of 《Donginmyeongdangdo(銅人明堂圖)》, of which the originally published ones were w drawings of the front and rear, and when *Jomunbyeong* republished he added 2 *Cheukindo*(側人圖) of the frontal side(正側) and rear side(背側).

5. When *Geunhyeon* edited 《Chimgudaesung》 only 14 medical books were used and quotes copied from other texts were always reedited. Most of the origins of the collected text are shown under the index, but many do not match with the original text. Also many documents were copied from medical books from later times and not the primal text.

6. The annotated sections of 《Chimgudaesung》 such as ‘*Yangsi*(楊氏)’, ‘*Yangsjip*(楊氏集)’, ‘*Yangsijuhae*(楊氏注解)’, ‘*Hyeongibiyo*’ are all from *Yanggyeju*’s 《*Hyeongibiyo*》. Of these the origins for the sections marked ‘*Yangsjip*’ can be found, but some of the origins for sections annotated ‘*Yangsi*’ cannot be found.

**Key words** : 《Chimgudaesung(鍼灸大成)》, *Yanggyeju*(楊繼洲), 《Hyeongibiyo(玄機秘要)》, *Geunhyeon*(靳賢), ‘*Chukin* edition(縮印本)’, ‘*Jungsu* edition(重修本)’, ‘*Chesu* edition(遞修本)’

## I. 서론

明代 침구학의 발전은 前代 혹은 전인들의 침구문헌을 匯編·整理하는 작업이 주류였다. 集成의 성격을 띤 鍼灸全書인 《鍼灸大成》·《鍼灸節要聚英》·《鍼灸大成》·《類經圖翼》이 출현하였고, 종합의서인 《普濟方》·《醫學綱目》·《奇效良方》·《古今醫統》에 침구에 관한 전문 편장을 두어 역대 침구문헌을 회집하였다<sup>2)</sup>. 이 시기 침구학은 이론이 복잡해지는 경향이었고, 특히 침법이 術數의 이어서 임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明末 저명한 鍼灸家인 楊繼洲(약 1522-1620)는 名이 濟時이고 浙江 衢縣 사람이다. 대대로 의업에 종사하였고, 조부는 태의원에 임직하였다. 楊氏는 어렸을 때부터 儒學을 공부하였으나 나중에 醫學으로 전향하여 世宗의 侍醫, 太醫院 의관 등을 역임하였다. 많은 의서를 독파하여 各家의 학설에 능통하였다. 그는 40여 년 동안 의업을 행하여 임상경험이 매우 풍부하였고 특히 침구에 정통하였다. 明·萬曆 29년(1601)에 楊氏는 초년에 편찬한 《衛生鍼灸玄機秘要》를 확충하여 명대 이전의 침구문헌을 광범하게 참고하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추가하여 《鍼灸大成》 10권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本書는 圖文이 많고 내용이 광범하며 詩歌형식으로 나타내었다.

《鍼灸大成》이 初刊되고 부터 清末에 이르기까지

300여 년간 重刊 및 重印한 것인 모두 30여 차례이고, 또한 앞서 5차례는 모두 官府에서 刊印한 것으로 明末 및 명대 이후 침구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sup>5)</sup>.

최근에 학자들이 本書를 계통적으로 정리 연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鍼灸大成》의 編者는 도대체 누구인지, ‘明刊本’의 진위, ‘影印本’의 내력 및 이 책과 《玄機秘要》의 관계 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논자는 최근의 黃龍祥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침구의학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醫籍인 《鍼灸大成》에 관하여 作者, 판본, 기본내용과 구성, 인용 문헌의 특징에 관한 문헌적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본론 및 고찰

### 1. 作者

《鍼灸大成》의 作者에 관하여 대부분 ‘楊繼洲’로 되어 있으나 어떤 사람은 靳賢이라 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書目에서는 ‘明·章廷珪撰, 清·靳賢集’(《郭範氏天一閣書目內編》)으로 되어 있다. 日本 書目에는 대부분 ‘趙文炳’으로 되어 있다. 사실 楊繼洲가 편찬한 책은 《衛生鍼灸玄機秘要》 3卷이다. 이 책은 吏部尙

書 王國光이 서문을 지어 1580년에 출판하였지만 어떤 연유로 최후에 판각이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20년 후에 楊繼洲가 침술로 巡按山西 監察御史인 趙文炳의 痿疾을 치료하였고, 또한 《玄機秘要》를 보이고 趙氏가 자금을 내어 출판할 즈음에 ‘猶以諸家未備’하여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러 책들을 널리 구하게 하였다<sup>1)</sup>.

楊氏의 《玄機秘要》 3권을 기초로 다시 보충 편집하여 10권으로 만들고 서명을 《鍼灸大成》(趙文炳의 <刻鍼灸大成序><sup>1)</sup>, <重刊銅人圖序>에 나타남)이라 하였다. 구체적인 편집자에 관해서는 《鍼灸大成》 <鍼道源流>에 “《鍼灸大成》 總輯以上諸書, 類成一部, 分爲十卷. 委晉陽 靳賢選集校正”<sup>3)</sup>이라 하였다. 명을 받아 《鍼灸大成》을 보충시켜 다시 편집한 사람은 靳賢이지 楊繼洲가 아니다. 따라서 책 속에 按語, 本文 및 문헌출처의 注文에서 언급된 ‘楊繼洲’는 모두 3인칭으로 되어 있다.

靳賢은 《鍼灸大成》의 주요 편집자이면서 또한 《銅人明堂圖》를 校訂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림과 《鍼灸大成》에 실린 腧穴 및 腧穴의 부위, 배열 차서가 모두 같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楊繼洲는 단지 《玄機秘要》의 저자이고, 靳賢은 趙文炳의 명을 받들어 楊氏의 책을 기초로 《鍼灸大成》을 다시 보충시켜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학자들이 이 두 책을 같은 책으로 본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鍼灸大成》의 저자는 ‘明楊繼洲原著, 靳賢補輯重編, 趙文炳刻本’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2. 판본

《鍼灸大成》의 초기 판본은 모두 ‘官刻本’이다. 明代에는 단지 한 차례 萬曆 辛丑(1601)에 각인한 ‘趙文炳刻本’이다. 최초의 重刊本은 淸·康熙 19년 李月桂의 重刻本으로 이는 기타 중간본의 祖本이다. 이밖에 官刻本은 乾隆 2년 知平陽府事 章廷珪의 刻本으로 이 판본은 ‘李月桂重刊本’을 底本으로 삼아 校刻하였다. 각기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明·萬曆 趙文炳 刻本’

趙文炳이 <刻鍼灸大成序>를 지은 시기는 萬曆 辛丑(1601)년이고 같은 해 趙氏가 <重刊銅人圖序>에서 “委集《鍼灸大成》一書已付之梓矣”<sup>1)</sup>라 하여 《鍼灸大成》의 初刻本은 즉 ‘明·萬曆 29년 趙文炳 刻本’<sup>2)</sup>

임을 말해주고 있다. 順治 丁酉(1657)년에 이르러 즉 명대에 初刊한 후 56년에 ‘舊版殘缺漫漶’하였기 때문에 知平陽府事 李月桂가 修補하여 重印(즉 ‘重修本’)하였다. 康熙 34년 平陽에 지진이 일어나 平陽府에 소장된 ‘重修本’이 훼손되자 按察司使管山西平陽府事인 王輔가 재차 보수하여 康熙 37년에 인쇄(즉 ‘遞修本’)하였다. 일반적인 이치에 따르면 나중에 인쇄된 ‘重修本’, ‘遞修本’이 더욱 많이 유전되어야 하지만, 《中醫圖書聯合目錄》에 수록된 《鍼灸大成》의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萬曆二十九年刻本’으로 모두 15部이다.

그러나 ‘重修本’, ‘遞修本’은 각기 한 부만 있어 실로 의아스럽다.

고찰을 통하여 ‘明萬曆刻本’은 대부분 ‘重修本’, ‘遞修本’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원래 ‘重修本’과 ‘遞修本’을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고친 판본의 본래 면목을 쉽게 식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 2) ‘淸·康熙 李月桂 本’

인쇄의 형식과 판본의 방식은 李氏 順治 ‘重修本’과 같고, 다른 점은 康熙重刊本 版心に 서명인 《鍼灸大成》이 새겨져 있고 單魚尾로 되어 있다<sup>2)</sup>. 첫 권에는 康熙 庚申(1680) 李氏의 <重刊鍼灸大成序>, 王國光의 <衛生鍼灸玄機秘要原序>, 趙文炳의 <刻鍼灸大成序>와 李氏의 <前重修鍼灸大成序>를 차례로 실었다.

당시 다시 校刊한 작업에 대해 李月桂의 序에서 “舊版漫漶, 兼多殘不全, 乃復取原本, 手自編摩, 細加讎校, 按圖索解, 雖一字一畫, 不敢少自假易”<sup>7)</sup>이라 하였다. 이 판본과 李氏의 順治 ‘重修本’을 일차적으로 대조한 후에 李氏는 앞의 ‘重修本’에 따라 엄격히 校刻하여 함부로 글자를 고치지 않았다. 심지어 원서에 나타나는 淸代의 諱字인 ‘玄’자 조차도 빼거나 고치지 않았다. 다른 점은 원서의 篇目 아래 문헌의 출처를 표시한 문자인 ‘楊氏’, ‘楊氏集’, ‘楊氏注解’ 등을 ‘楊繼洲’, ‘楊繼洲集’, ‘楊繼洲注解’로 고쳤다.

이밖에 권6의 첫머리에 ‘臟腑正面圖’, ‘臟腑背面圖’ 2쪽을 증가시켰다. 이 두 그림은 淸初에 널리 유행하였고, 淸初 《循經考穴編》과 淸·康熙 27년에 성서된 王宏翰의 《醫學原始》에 이 두 그림을 실었다. 또 ‘順治本’에서 손상된 글자는 이 판본에서 대부분 오류가 없이 보수하였는데, 李氏가 말한 ‘原本’이 ‘重修本’ 이전의 原刊本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한다.

### 3) ‘清·乾隆 章廷珪 刻本’

판본의 방식과 인쇄의 형식은 李月桂 康熙19年 刻本과 같다<sup>2)</sup>. 첫 권에 乾隆 2년 章氏의 <重修鍼灸大成序>, 李月桂의 <前重修鍼灸大成序>, 趙文炳의 <刻鍼灸大成序>가 차례로 실려 있고 고친 사람의 이름이 실려 있다. 卷의 하단에 “會稽章廷珪重修”<sup>1)</sup>, “臨汾鄭維綱, 長洲歸天鎔校讎”<sup>1)</sup>, “翼城李本修督刊”<sup>1)</sup>이라 표시되어 있다. 이 판본은 康熙 19年 李月桂 刻本을 근거로 자세히 교정하여 중간하였는데, 舊本에서 착오가 분명한 것은 개정하였다. 清代의 諱字인 ‘玄’자와 ‘弘’자는 대부분 빠져있다.

### 4) ‘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

1955년에 人民衛生出版社에서 《鍼灸大成》을 영인하고 책의 앞머리에 ‘用明刊本影印’이라 밝혔다. 그러나 현존하는 ‘明刊本’ 혹은 ‘重修本’, ‘遞修本’이라 제목을 붙인 각종 판본을 대조해 보면 모두 다르지만 이 3종의 판본 특징이 모두 이 영인본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영인본은 어떻게 제작된 것일까?

5~60년대에 의서를 영인한 것은 주로 실용을 고려하여 영인본의 열람 효과를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부분 拼版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는데, 즉 여러 책 가운데서 책의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 합쳐서 책을 만들고 다시 판본을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遞修本’에서 康熙 37년에 補刻한 것은 斷版된 흔적이 없고 품질이 좋아 대량으로 채용하였다. 康熙 연간에 다시 보수할 때에 舊版이 훼손되었고 舊本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補版하는 중에 錯字와 缺字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錯字와 缺字는 판본에 따라 혹은 정도에 따라 다른 필치로 고치거나 첨가시켜 보충하였다. 원서 가운데 이렇게 補版한 字體는 舊版과 분명히 달라 쉽게 식별된다.

그러나 영인본에는 빠진 글자가 모두 보완되었고, 원서가 몇 배로 축소되어 영인되었기 때문에 康熙 연간에 補版된 것은 식별이 쉽지 않을뿐더러 후인이나 오늘날 사람이 고치고 보완한 글자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게 변하였다.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을 줄곤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 판본으로 《鍼灸大成》을 點校하는 藍本으로 삼게 되었다.

### 5) ‘岳麓書社影印本’

1993년 岳麓書社에서 ‘上海圖書館館藏善本明萬曆刻本’에 근거하여 《鍼灸大成》을 영인하였다. 이 판본

은 실은 清·康熙 37년에 王輔의 ‘遞修本’이며 서적상인이 원본에서 王輔의 서문을 빼버리고 明·萬曆 原刊本으로 가장하였다<sup>1)</sup>.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鍼灸大成》을 정리함에 있어서 明·原刊本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清·順治 李月桂의 ‘重修本’을 底本으로 채택해야 한다. 底本에서 殘缺되어 모호한 글자는 康熙 19年 李月桂의 ‘重刻本’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3. 기본 내용과 구성

권1 : 《黃帝內經》과 《難經》에서 침구에 관한 논술을 적록하였는데, 그중에 몇몇 篇目은 《鍼灸節要》·《鍼灸聚英》·《古今醫統大全》 등에서 베낀 것으로 직접 원서를 초록한 것이 아니다.

권2, 권3 : 주로 鍼灸歌賦의 選集이다. 그 중에 ‘勝玉歌’만이 楊繼洲가 저작하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楊繼洲, 靳賢이 다른 책에서 수집한 것이다. 歌賦 뒤에 ‘楊氏考卷’ 4편이 붙어있다.

권4, 권5 : 주요 내용은 刺法, 鍼法이다. 그 중 권4는 鍼灸와 鍼刺補瀉法의 문헌을 골라 수록하였고, 권5는 주로 ‘子午流注’, ‘靈龜八法’, ‘八穴八法’ 등 時間鍼法의 내용이다.

권6, 권7 : 腧穴卷의 내용은 주로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수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기재된 수혈의 숫자, 수혈의 정위 및 배열 차서는 모두 당시의 鍼灸銅人에 의거하였고 靳賢이 교정한 《銅人明堂之圖》와 같다. 따라서 각 경의 첫머리에 있는 經穴歌 원문도 《醫學入門》에 기재된 經穴歌에 상응시켜 채용하였는데 본문과 서로 부합한다. 동시에 소수의 腧穴 내용 또한 明刊 三卷本인 《銅人腧穴鍼灸圖經》에 의거하여 개편하였다. 이 부분의 수혈 내용에 ‘楊氏集’이라 주를 달았지만 그 중에 靳賢이 보충하여 수집한 내용도 적지 않게 있다. 예를 들어 十四經의 ‘經穴歌’, ‘仰人經穴圖’, ‘伏人經穴圖’, ‘十四經脈尺短尺寸’ 등의 편은 모두 靳賢이 보충 수집한 것이다.

권8 : 《神應經》에서 腧穴과 鍼灸証治 내용을 주로 초록하였고, 卷末에는 《鍼灸聚英》·《鍼灸大全》·《乾坤生意》 등에서 침구치료 내용을 집록하여 ‘續增治法’을 편성하였다.

권9 : 첫머리에 ‘名醫治法’, 楊氏‘鍼邪秘要’를 실었고, 다음은 灸法의 選集이며, 끝에는 楊繼洲의 鍼灸醫案을 붙였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첫 편인 ‘治症總要’ 篇目 아래의 注에 ‘楊氏’ 두 글자가 있는데, 이전 사람

들은 모두 이 편을 楊繼洲가 침구임상에서 겪은 실록으로 보았다. 사실 이 편은 元代 鍼方 전문서인 《鍼方集》에서 베꼈기 때문에 篇目 아래 ‘楊氏’ 두 글자는 전서의 체례에 근거하여 ‘楊氏集’으로 고쳐야 한다.

권10 : 부록의 성격이다. 小兒按摩法의 내용은 《小兒按摩經》에서 수집하였고, 다음은 高武의 ‘附’(《古今醫統大全》에서 베김)이고 마지막은 ‘益’으로 補遺에 해당한다.

靳賢의 《鍼灸大成》은 楊繼洲의 《玄機秘要》를 기초로 다시 편집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明刊本 《鍼灸大成》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楊氏의 《玄機秘要》 원문이고, 두 번째 측면은 靳賢이 補輯, 校注한 글이다. 靳賢이 《鍼灸大成》을 편성할 때에 각 편 아래 대부분의 주에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책에서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靳賢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楊繼洲의 원서에 대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상응하게 고쳤다. 고친 글자 또한 어떤 표시도 하지 않고 楊繼洲의 원문과 서로 섞여 내용에 의거하여 판별할 수 있는 약간의 문자 이외에는 대부분의 문자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행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정황을 알 수 있다. ‘楊氏’ 혹은 ‘楊氏集’이라 표시되어 있는 篇에서 어떤 특징은 靳賢이 편집한 편목의 특징과 완전히 같다. 예를 들어 권7 ‘楊氏集’에서 足少陽經 目窗 혈위를 “臨泣後寸半<sup>3)</sup>”라 하였으나 靳賢이 《神應經》에서 보충하여 수집한 <百法穴歌>와 <穴法圖>에는 目窗穴의 부위가 原文의 ‘一寸’을 ‘寸半’으로 모두 고쳤다. 靳賢이 楊氏의 학술관점에 부합시키기 위해 다른 책의 원문을 고쳤다고 볼 수는 없다. 靳賢이 자신의 학술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楊氏 원서의 글을 삭제하고 고쳤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 4. 인용 문헌

《鍼灸大成》 권1 <鍼道源流>에는 모두 26부의 의서를 나열하고, 篇의 끝에 “《鍼灸大成》 總輯以上諸書, 類成一部爲十卷<sup>3)</sup>”이라 주석하였다.

그러나 《神應經》 앞 16부의 書目 내용은 모두 高武의 《鍼灸節要》, 《鍼灸聚英》에서 직접 초록한 것이다.

《鍼灸大成》을 편찬하면서 채용한 참고 서목은 실제로 《醫經小學》·《神應經》·《乾坤生意》·《鍼灸大全》(또한 《鍼灸捷要》라 함)·《鍼灸聚英》·《鍼灸節

要》·《古今醫統大全》·《醫學入門》·《小兒按摩經》·《黃帝內經素問》·《難經本義》 및 楊繼洲의 《玄機秘要》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奇效良方》·《鍼方集》 등 모두 14종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서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玄機秘要》

이 책은 楊繼洲가 家傳된 대량의 의서 가운데 침구에 관한 것을 골라 그림을 나누고 분류하여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붙여 3권으로 편찬하였다. 말하자면 이 책은 주로 전인의 의서 가운데 침구의 정수를 회집하고 편을 분류하여 만든 것으로 楊繼洲 본인이 아니라 침구임상에서 그의 부친이 경험한 것을 총결한 것이다.

이 책이 편성된 이후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吏部尙書 王國光이 <序文>을 지어 간행하여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의 구체적인 刊刻 연대는 明·萬曆 庚辰年(1580)으로 고증되었지만<sup>1)</sup>, 趙文炳의 <刻鍼灸大成序>를 살펴보면 楊氏의 《玄機秘要》는 간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존하는 각 서목에서도 이 간본을 수록하지 않았다. 이 책의 전문은 靳賢이 다시 엮은 《鍼灸大成》 속에 수록되었고, 오늘날 《鍼灸大成》 각 편에서 표기한 ‘楊氏’, ‘楊氏集’, ‘楊氏注解’, ‘玄機秘要’는 모두 楊繼洲의 《玄機秘要》에서 나온 것이다.

‘楊氏’라 표시한 편장과 ‘楊氏集’이라 표명한 원문을 대조해 보면 후자는 모두 다른 책에서 직접 베꼈고, 전자는 대부분 楊氏의 논문이거나 楊氏가 개편한 다른 책의 글임을 발견할 수 있다. 楊繼洲가 《玄機秘要》를 편찬할 때에 자신이 지은 글과 다른 책에서 직접 베낀 글에 대해 구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하자면 楊繼洲가 인용한 다른 책의 글은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靳賢이 《鍼灸大成》을 편찬할 때에 楊氏의 원서에서 이 두 부분의 문자를 각기 ‘楊氏’와 ‘楊氏集’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鍼灸大成》에서 ‘楊氏’라 표시한 몇몇 원문은 실은 베낀 것이거나 혹은 다른 책에서 개편한 것이지 楊氏가撰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권9 <治症總要> 篇 아래의 注에 ‘楊氏<sup>3)</sup>’가 있는데, 이전의 사람들은 줄곧 이 편을 楊氏의 침구임상 실록으로 보아 이를 楊繼洲 침구학술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문헌으로 삼았다. 실은 이 편이 문자는 명대 이전의 침방서인 《鍼方集》에서 초록한 것이다.

## 2) 《鍼灸節要聚英》

《鍼灸節要聚英》은 高武가 明·嘉靖 己丑年(1529)에 편찬하고 1537년에 간각하였다. 전서가 모두 7권으로 《鍼灸節要》과《鍼灸聚英》을 포함하여 上·中·下로 분류하였는데, 즉 上은 《鍼灸節要》 3권이며, 中과 下는 《鍼灸聚英》 4권이다. 이 책은 明代에 한번만 간행되었기 때문에 유전이 《鍼灸大成》보다 훨씬 광범하지 못하다.

楊氏가 腧穴 부분에서 인용한 《鍼灸聚英》 문헌의 양은 대략 《玄機秘要》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鍼灸大成》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게다가 別卷에서 인용한 것은 《鍼灸大成》에서 적어도 1/3 정도가 高武의 《鍼灸節要聚英》에서 나온다.

楊繼洲 《玄機秘要》의 腧穴부분은 전문을 거의 《鍼灸聚英》에서 초록하였고 현행본은 아래 몇 군데에서 증보, 개편한 바가 있다.

첫째, 明代의 銅人에 의거하여 《鍼灸大成》 권6 足太陽膀胱經의 “眉冲”<sup>3)</sup>, “督俞”<sup>3)</sup>, “氣海俞”<sup>3)</sup>, “關元俞”<sup>3)</sup>와 권7 足少陽膽經 “風市”<sup>3)</sup> 등 5穴을 증보하였고, 《醫學入門》에 의거하여 이 5穴의 刺灸法과 주치병증 등의 내용을 보충하여 편집하였다.

둘째, 12경혈의 배열 차서와 腹部穴에서 중앙의 양쪽으로 행하는 폭의 거리는 모두 明代 銅人에 의거하였다.

셋째, 소량의 腧穴 즉 ‘下關’, ‘太乙’, ‘水道’, ‘委陽’, ‘陰都’, ‘幽門’, ‘外關’, ‘淵液’, ‘京門’, ‘陽交’, ‘光明’, ‘神道’, ‘前頂’, ‘上星’, ‘水溝’, ‘顴交’ 등의 혈 가운데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주치병증 원문을 수록하였다. 몇몇 수혈 내용은 또한 《銅人腧穴鍼灸圖經》에 의거하여 개편한 것으로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완전히 초록한 것은 아니다.

이상의 개편은 靳賢의 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醫學入門》이 초간된 것이 萬曆 4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銅人腧穴鍼灸圖經》은 楊繼洲와 동시대 사람인 馬蒔와 李梴 등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楊繼洲가 이 두 책을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 3) 《神應經》

《神應經》은 明初 劉瑾이 편집하였다. 이 책은 서문과 <折量法>篇을 제외한 나머지 <百穴法歌><sup>4)</sup>, <補瀉手法><sup>4)</sup>, <穴法圖><sup>4)</sup> 등은 거의 전문이 《鍼灸大成》에 인용되어 靳賢이 이 책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鍼灸大成》 권8에 인용

한 내용은 현존하는 각 전본의 《神應經》과는 비교적 차이가 많지만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인용한 《神應經》의 내용과는 많이 부합한다. 이는 靳賢이 당시에 채용한 《神應經》 관본이 현존하는 본에 비해 빨라 《神應經》을 교감하는데 중요한 他校 자료로 삼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 4) 《古今醫統大全》

全書는 100권으로 明代 徐春甫가 편찬하였다. 《鍼灸大成》에서 발췌한 것은 이 책의 권6 <經穴發明>, 권7 <鍼灸直指>이다. 이 두 권의 내용은 주로 高武의 《鍼灸聚英》과 《鍼灸節要》에서 선별하였다. 靳賢이 직접 高武의 원서에서 수집한 것이 아니라 徐春甫의 《古今醫統大全》에서 高武의 원문을 복사한 것으로 심지어 高武의 학술관점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부분인 <附辯><sup>3)</sup>도 《醫統大全》에서 배겼다. 문헌을 채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 5) 《難經》

《鍼灸大成》에서 인용한 《難經》의 本文과 注文 내지는 按語는 모두 元末 滑壽의 《難經本義》에서 따온 것이다<sup>3)</sup>. 따라서 《鍼灸大成》에 실린 《難經》의 원문을 교주함에 있어서 《難經本義》에 근거해야지 다른 본에 의거해서 교정해서는 안 된다.

## 6) 《醫經小學》

《醫經小學》은 明初 劉純이 편집하였다. 그 가운데 권3은 經絡卷으로 經絡, 腧穴 歌賦 11수가 실려 있고, 권5는 鍼法篇으로 침법과 금기법 歌賦 7수가 실려 있다. 《鍼灸大成》에서는 권2의 <周身經穴賦><sup>3)</sup>, 권3의 <五運主病歌><sup>3)</sup>, 권5의 <井榮俞經合歌><sup>3)</sup> 등 歌賦만 인용 수록하였다.

《醫經小學》 이외에 劉純이 저작한 《玉機微義》·《傷寒治例》·《雜病治例》 등에서도 대량의 침구 내용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鍼灸大成》 권1 <鍼道源流>篇에는 이 3책을 언급하지 않았고, 권8과 권9에 수록된 이 책에서 침구방면은 모두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복사한 것이다.

## 7) 《小兒按摩經》

《小兒按摩經》은 四明 陳氏의 저작이다. 《鍼灸大成》 권10 小兒按摩는 주로 이 책에서 배긴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일실되었고 書目的 기재에도 볼 수 없으며, 《鍼灸大成》 이전에 李梴의 《醫學入門》 권6 <小兒門>에서 이 책을 일부 채용하였으나 李氏가 원문을 직접 수록하지 않고 7韻으로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또한 인용한 분량도 많지 않다. 《鍼灸大成》에서 직접 인용하여 수록한 《小兒按摩經》의 문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원서의 대강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은 주로 靳賢이 편찬한 《鍼灸大成》에서 직접 채용한 서목이다. 이 이외에 楊繼洲가 《玄機秘要》를 편찬할 때에 전인의 의서를 대량으로 참고하였다. 그 중에 몇몇은 상술한 靳賢이 채용한 책과 같고, 어떤 것은 靳賢이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서 언급할 만한 것은 아래의 2종이다.

(1) 《鍼方集》

《鍼灸大成》 권9 <治症總要>에 鍼方 151首가 실려 있고 편명 아래에 “楊氏”<sup>3)</sup>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들은 이 편을 楊繼洲의 임상 실록으로 취급하여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이 부분의 내용은 元代 鍼方 전문서인 《鍼方集》에서 직접 베낀 것이지 楊繼洲가 침구임상에서 경험한 것을 총결한 것이 아니다<sup>1)</sup>.

《鍼方集》의 내용은 《玉龍歌》 및 元代 《直刺秘傳》(《玉龍經》을 발췌한 것에 이 책의 鍼方이 있음)에 가깝다. 明初 《醫學綱目》에 이 책의 침방을 대량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元末明初 《瓊瑤神書》에서도 《鍼方集》의 鍼方 9수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鍼方集》의 성서 연대는 元代 말엽보다 빠르다.

(2) 《奇效良方》

이는 官修醫書로 明代 의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楊繼洲가 《玄機秘要》를 편찬할 때에도 이 책의 제 55권 鍼灸門에서 刺法, 奇穴에 관한 내용을 직접 채용하였다.

楊繼洲의 ‘穴有奇正策’에서 열거한 奇穴의 이름과 그 배열 차서는 《奇效良方》에 실린 奇穴과 완전히 같다. 이밖에 《鍼灸大成》 권4 <三衢楊氏補瀉>에는 楊氏가 수집한 刺法의 문헌 가운데 “赤鳳搖頭”, “蒼龍擺尾”, “龍虎交戰”, “龍虎升騰”, “子午搗臼”, “陽中隱陰”, “陰中隱陽”, “留氣法”, “運氣法”, “提氣法”<sup>3)</sup> 등은 모두 《奇效良方》에 실린 상응하는 자법과 같다. 靳賢이 《鍼灸大成》을 편찬할 때에 《奇效良方》을 참고하였는데, 예를 들어 권3 <行鍼總要歌>가 바로 이 책에서 나왔

다. 이전 사람들은 그 출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歌賦를 楊繼洲가 만든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상 두 책 이외에 《鍼灸大成》 권6과 권7의 腧穴篇에서도 王惟一의 《銅人腧穴鍼灸圖經》을 참고하였고, 高武가 수집한 수혈 내용에 대해 증보와 수정을 가하였다. 그러나 언급한 腧穴은 매우 적고 절대 다수의 腧穴 내용은 여전히 《鍼灸聚英》에서 직접 초록한 것으로 수정 작업이 철저히 못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楊繼洲가 편찬한 《玄機秘要》와 靳賢이 편찬한 《鍼灸大成》에서 직접 채용한 문헌이다.

### 5. 인용 문헌의 특징

위의 고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楊繼洲가 《玄機秘要》를 편찬하고, 靳賢이 《鍼灸大成》을 편찬할 때에 직접 채용한 문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문헌을 채용하는 방식이 비교적 복잡하다.

#### 1) 문헌을 간접적으로 채용

《鍼灸大成》에서 인용한 문헌 가운데 몇몇은 최초에 수록된 문헌의 원서를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라 후세 의서에 의거하여 복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高武가 《鍼灸節要》를 편찬할 때에 《黃帝內經·素問》 등 경전에서 침구논술과 관련한 것을 적록하여 편으로 분류하였고, 그 후 徐春甫가 《鍼灸直指》를 편집할 때에 인용한 《黃帝內經·素問》의 원문 또한 《鍼灸節要》에 의거하여 개편하였다.

靳賢이 《鍼灸大成》을 편집할 때에 권1 첫 머리에 《黃帝內經·素問》과 《難經》에서 침구를 논한 것을 모았다. 그 가운데 일부 篇目은 《黃帝內經·素問》에서 직접 베꼈고, 어떤 것은 《鍼灸節要》에서 초록하였으며 또한 《鍼灸直指》에 의거하여 복사한 것도 있다. 그러나 출처는 모두 《黃帝內經·素問》으로 주를 달아 문헌을 채용하는 방식과 인용문 출처를 標註한 것이 모두 엄격하지 못해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가 쉽다.

#### 2) 인용문을 改編한 것이 많음

楊繼洲, 靳賢이 다른 책을 인용할 때에 종종 각자의 이해에 따르거나 혹은 문자의 편의를 위해 인용 원문을 상응하게 개편하였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학술관점에 따라 개편한 예

“陽蹻陽維并督帶，主肩背腰腿在表之病。陰蹻陰維任衝脈，去心腹脇肋在裏之疑(疑는 疾임 : 《鍼灸大成》 권1 <標幽賦·楊氏注解>)”<sup>3)</sup>

이상은 楊繼洲가 《鍼灸大全》에서 수집한 《標幽賦》로 楊氏의 注文도 대부분 徐鳳의 原注에서 베꼈다. 그러나 위 구절에 대해 楊氏의 이해와 徐氏가 다르다.

徐氏의 《鍼灸大全》 권2의 <標幽賦> 원문에서는 “陽蹻陽維并督脈，主肩背腰腿在表之病。陰蹻陰維任衝帶，去心腹脇肋在裏之疑”<sup>6)</sup>라 하였다. 이에 비하여 楊氏가 交經하는 8혈의 음양 속성에 근거하여 陽蹻·陽維·督脈·帶脈을 陽脈에 귀속시켜 표의 병을 주치하고, 陰蹻·陰維·任脈·衝脈을 陰脈에 귀속시켜 裏의 질환을 주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鍼灸大成》에 기재된 竇漢卿의 《標幽賦》 원문을 위와 같이 바꾸고 주해하였다. 그러나 楊氏의 개인적 관점을 注文에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을 고치는 법은 타당하지 못하다.

“目窗，臨泣上寸半”——《鍼灸大成》 권3 <百法穴歌>(《神應經》)<sup>3)</sup>

“目窗，在臨泣後寸半”——《鍼灸大成》 권8 <穴法圖>(《神應經》)<sup>3)</sup>

“目窗，臨泣後寸半”——《鍼灸大成》 권7 <足少陽經>(《楊氏集》)<sup>3)</sup>

권6과 권7에서 수집한 수혈의 부위와 배열순서는 당시의 鍼灸銅人穴法에 의거하였고, 그 권에 수록된 各家의 수혈이 銅人穴의 정위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모두 고쳤다. 이상 《神應經》과 楊氏가 《鍼灸聚英》에서 수집한 것을 수록한 ‘目窗’혈 부분이 원문에서는 모두 ‘臨泣’혈 뒤쪽 ‘一寸’으로 되어 있으나 靳賢은 銅人의 穴法에 의거하여 모두 ‘寸半’으로 고쳤다. 권6과 권7에 수록된 《鍼灸聚英》 수혈 부위가 銅人穴과 다른 것은 모두 고쳤다. 靳賢이 여러 의서의 원문을 초록할 때 종종 일가의 말로 각가의 설을 통일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격식의 통일을 위해 삭제하거나 개정한 예

《黃帝內經·素問》은 대부분 黃帝와 岐伯의 문답 형식으로 논술되어 있다. 《鍼灸大成》에서 輯錄한 《黃帝內經·素問》의 단락에 문답의 말이 없으면 靳賢은 대부분 ‘黃帝問’, ‘岐伯曰’ 등과 같이 보충시켰다. 예를 들어 《黃帝內經·素問》 <刺熱篇>은 문답이 없는데, 靳賢이 이 편을 수록할 때에 편의 첫 머리에

“黃帝問曰：五臟熱病奈何? 岐伯曰”<sup>3)</sup> 13자를 증보하였다. 그는 <刺癰論>과 <刺腰痛論>에도 유사하게 증보시킨 글이 있다. 다른 사람의 按語를 인용할 때에 종종 안어를 붙인 사람의 이름을 생략하였다. 인용한 원문의 注文은 대부분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개편하여 원래 주문의 뜻과 종종 부합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鍼灸大成》의 주에서 인용문 출처가 실제 인용문 출처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권1의 <鍼道源流>와 <難經> 이외에 모두 36편이 실려 있는데, 주석에서 ‘俱《素問》’이라 하였다. 실은 17편만 《黃帝內經·素問》에서 나왔고 나머지 19편은 《黃帝內經·素問》에서 수집한 것이 아니다. 권1의 本文 篇目 앞에 “鍼灸直指”<sup>3)</sup>라는 總目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 나온 것은 4편뿐이고 실제로 인용문 출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른 권에서 주석한 인용문 출처의 착오도 그 예가 적지 않다.

《鍼灸大成》에서 채용한 문헌은 대부분 베낀 것이고 초록한 원문도 개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정리할 때에는 반드시 他校法을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他校할 때 근거로 삼는 ‘他書’는 반드시 《鍼灸大成》에서 실제로 인용한 책이어야 하고 경락에 관한 내용을 보면 모두 《黃帝內經·靈樞》에 의거하여 교정해야 하고, 腧穴의 내용은 《黃帝三部甲乙經》과 《銅人腧穴鍼灸圖經》을 취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 III. 결 론

본문을 통하여 논자는 明代 鍼灸專籍인 《鍼灸大成》의 문헌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鍼灸大成》은 靳賢이 楊繼洲의 《玄機秘要》를 기초하여 補輯·重編하여 만들었고, 萬曆 29년 趙文炳가 刻印을 주관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明·楊繼洲 原著, 靳賢 補輯 重編’이라 제목을 붙여야 한다.
2. 현존하는 각종 ‘明刊本’은 대부분 淸·順治 14년 李月桂의 ‘重修本’ 및 康熙 37년 王輔의 ‘遞修本’이다. 이들 판본은 모두 후인이 대량으로 보충하고 개정하였거나 베낀 부분이 많다. 따라서 진정한 명대 原刊本을 찾기 전에는 《鍼



灸大成》 정리에 후인이 고친 李月桂의 ‘重修本’ 원본을 底本으로 삼아야 하고, 이 판본에서 문자가 흐릿한 곳은 주로 李月桂의 康熙 重刊 ‘初印本’에 의거하여 확인해야 한다. 부득불 고찰할 경우는 ‘明刊本’을 저본으로 삼아야지만 訛傳을 주의해야 한다.

3. ‘縮印本’ 《鍼灸大成》은 대부분 이른바 ‘明刊本’을 병합한 것으로 그 중에 ‘遞修本’에서 補刻한 新版을 대량으로 채용하였다. 뒤섞이고 빠진 것이 많아 판을 합하여 縮印한 후에는 원서에서 후인이 고치고 새롭게 증가시킨 문자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鍼灸大成》 정리에 이 판본을 底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1993년에 출판된 《鍼灸大成》 영인본은 그 저본이 康熙 37년 王輔의 ‘遞修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鍼灸大成》 정리에 底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4. 《鍼灸大成》이 발간된 후 趙文炳이 匠人에게 시켜 《銅人明堂圖》 4쪽을 다시 간행하였는데 원래 간행된 것은 단지 正과 背의 2쪽이었고, 趙文炳이 중간할 때에 正側과 背側인 2쪽의 側人圖를 새로 증가시켰다. 그림에서 腧穴의 정위에 모두 문자로 설명하였다.

靳賢은 이 그림을 교정하고 감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鍼灸大成》에 기재된 腧穴의 숫자, 배열 차서, 정위 모두 이러한 그림 특히 3번째와 4번째 側人圖와 서로 부합한다. 《鍼灸大成》의 腧穴部 교정에 이 그림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그러나 《鍼灸大成》 첫 권에 있는 ‘仰人周身總穴圖’와 ‘伏人周身總穴圖’ 그리고 권6과 권7에 실린 腧穴은 차이가 많아 《臟腑明堂圖》의 간략한 그림일 수 있다.

5. 靳賢이 《鍼灸大成》을 편집할 때에 직접 채용한 의서는 14부에 불과하고 다른 책의 원문을 베낄 경우 매번 개편한 예가 있다. 수록한 원문은 대부분 편목 아래에 출처를 밝혔지만, 실제 인용문의 출처와 부합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이밖에 적지 않은 문헌은 원시 문헌에서 직접 수집한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온 의서에서 베낀 것이다. 따라서 《鍼灸大成》을 교감할 때에는 반드시

‘他校法’을 신중히 이용해야 한다. ‘他校’하는 책을 골라 준용하고 ‘他校’하는 책의 판본도 잘 선택해야 오류를 면하게 된다.

6. 《鍼灸大成》에서 ‘楊氏’, ‘楊氏集’, ‘楊氏注解’, ‘玄機秘要’처럼 주석을 단 篇目은 모두 楊繼洲의 《玄機秘要》에서 나온 것이다. 그 중에 ‘楊氏集’이라 표시한 篇目은 모두 문헌의 출처를 찾을 수 있지만, ‘楊氏’라 주한 篇目에는 출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는 《鍼灸大成》의 篇目 아래 주기한 ‘楊氏’, ‘楊氏集’에 다른 함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楊氏集’이라 표시한 篇目은 楊繼洲가 다른 책에서 직접 수집한 것이고, ‘楊氏’라 주한 것은 楊氏 자신의 작품이다. 따라서 《鍼灸大成》에 《玄機秘要》의 전문을 수록하였지만 내용은 靳賢의 개편을 거친 것으로 원서의 옛 모습이 아니다.

#### IV. 참고문헌

1. 楊繼洲 原著. 靳賢 重編. 黃龍祥, 黃幼民 点校. 鍼灸大成 《鍼灸名著集成》. 北京 : 華夏出版社. 1997 : 789, 1017-9, 1022.
2.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道 : 青島出版社. 2003 : 637, 643-4.
3. 楊繼洲 原著. 靳賢 重編. 中華醫學名著寶庫編輯委員會 編. 鍼灸大成 《中華醫學名著寶庫》. 北京 : 九洲圖書出版社. 1999 : 790, 871, 873, 895-7, 921, 923, 925-7, 970-6, 991-2, 1021, 1042, 1044, 1046, 1064-6, 1095, 1115, 1157, 1120, 1134-6, 1178-9.
4. 陳會 撰, 劉瑾 補輯. 神應經.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2007 : 7-9, 11-35.
5.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 법민문화사. 2007 : 795.
6. 徐鳳 著. 黃幼民, 黃龍祥 校注. 鍼灸大全 《鍼灸名著集成》. 北京 : 華夏出版社. 1997 : 507.
7. 裘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 1949-50.